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온라인 식품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인하

[미국 금융]

- WSJ: 트럼프 당선으로 미 증권거래위원장의 어젠다 후퇴
- Bloomberg: 헤지펀드 운영 Scott Bessent, 연방 재무장관 추천돼
- Bloomberg: 비트코인 가격 9 만 불에 육박한다

[미국 생활]

- CNNBusiness: 미국에서 조립식 주택 인기... 아마존, 페이스북에서 주문

[미국 관세 정책]

- NYT: 트럼프의 관세 조치, 멕시코 자동차 공장에 타격 줄 수 있어

[주택]

- NYT: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기지율... 향후에는?

[에너지]

- WSJ: OPEC, 4개월 연속해서 수요 전망 낮춘다
- Bloomberg: 미국,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 늘린다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트럼프 시대 맞아 내수 시장 회복에 힘쓴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홈디포, 3분기 매출 증가
- Bloomberg: Hertz, 테슬라 베팅 실패로 손실 증가
- CNBC: GM, 올해 관련 업계에서 독보적인 성과
- CNBC: 레드 랍스터, 밀레니얼 세대에 베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Online Food Prices Post First Year-on-Year Drop Since Cov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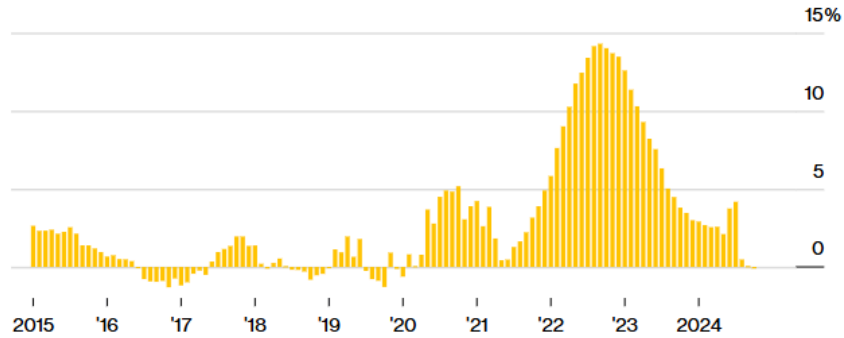
미 온라인 식품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인하

- 10월 미 온라인 식품 가격이 작년 동월에 비해 하락했다. 4년여 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 Adobe 식품 가격이 지난해 동월에 비해 0.1%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매 사이트 방문 거래 건 1조개와 제품 구매 건 1억개를 분석한 결과이다.

- 그동안 생활비, 특히 식품 비용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이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Deflationary Grocery Prices

Prices fell 0.1% in October, the first annual drop since January 2020



Source: Adobe Digital Price Index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Gary Gensler’s Ambitious SEC Agenda Could Be Near Its End 트럼프 당선으로 미 증권거래위원장의 어젠다 후퇴

- 미 증권거래위원회 Gary Gensler 위원장은 새로운 기후 변화 관련 기업 공개 의무화 규정, 가상 화폐에 대한 제한 강화, ESC에 따른 이슈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향후에 트럼프에 의해 새로운 증권거래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가 추진해 온 어젠다가 후퇴할 수 있다.
- 그는 연방 상원으로부터 2026년까지 재임하도록 승인됐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책임자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사임한다.
- 현 위원장은 이 같은 관례를 깨겠다고 공개 석상에서 시사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기자에게 “전통적으로 새 대통령은 새로운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Key Advisers to Trump Back Bessent for Treasury Secretary 헤지펀드 운영 Scott Bessent, 연방 재무장관 추천돼

- 트럼프의 핵심 참모 중에서 현재 헤지펀드 Key Square Group을 운영하고 있는 Scott Bessent이 연방 재무부 장관의 최고 책임자로 추천받고 있다.
- Bessent는 트럼프 캠페인 기간 중에 기금 모금, 트럼프의 경제 연설문 작성 지원, 정책 제안 조언 등의 역할을 했다. 트럼프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하

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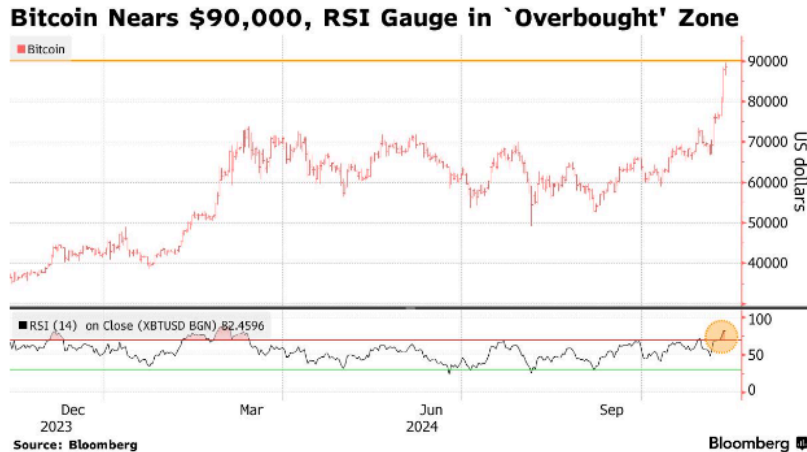
- 트럼프는 재무부 장관 후보자를 월가에서 찾고 있다. 헤지펀드 억만장자 John Pauson과 대통령 인수 작업을 돕고 있는 Cantor Fitzgerald의 대표 Howard Lutnick 등도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Bitcoin Nears \$90,000 as Crypto Market Exceeds Pandemic-Era Peak

비트코인 가격 9 만 불에 육박한다

- 트레이더들이 트럼프 재선 기간에 비트코인 붐이 조성될 것에 베팅하면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9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대선날인 11월 5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32% 상승해 오늘 화요일 현재 8만9천5백99 불에서 거래되고 있다.
- 트럼프는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정을 보다 자유롭게 한다고 약속했었다. 또한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비축과 국내 채굴 강화를 통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NBusiness: Manufactured homes are surging in popularity — and you can order them on Amazon or Facebook

미국에서 조립식 주택 인기... 아마존, 페이스북에서 주문

-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부부는 5만2천 불에 2천2백 제곱피트의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가 있는 중고 조립식 주택을 구매했다. 주택은 트럭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배달됐다.
- 주택가격이 급등해 현재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은 40만4천5백달러이다. 여기에 모기지율도 오르면서 주택 구입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조립식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 2만5천불 미만으로 조립식 주택을, 그리고 2만9천불에 재활용 용도의 배송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다층 주택을 아마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 젊은층에 퍼지고 있다. 이들은 가격 부담이 없는 집을 구입하고 싶어한다.
- 올해 들어 9월까지 7만7천개의 조립식 주택에 배달되었다. 미 주택 전체 숫자 중에 6%가 조립식 주택이다. 대부분 교외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Julie Johnson and her husband bought their four-bedroom home on Facebook Marketplace for just over \$50,000. Courtesy Julie Johnson

CNNBusiness 기사

[미국 관세 정책]

NYT: Trump's Tariffs Could Deal a Blow to Mexico's Car Factories

트럼프의 관세 조치, 멕시코 자동차 공장에 타격 줄 수 있어

-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그가 처음 임기 때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상했던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조치로 보일 수 있다.
- 트럼프는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진작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현재 멕시코 San Luis Potosí 소재 BMW 공장은 매년 3백만대를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 중 2백만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3천7백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 현재 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부품 중에는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도 있다. BMW 전기차 배터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공급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양국 자동차 생산 공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주택]

NYT: Mortgage Rates Fell, Then Rose. What Comes Next?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기지율... 향후에는?

- 주택 모기지율이 올봄부터 9월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갔었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 그러나 30년 모기지율은 거꾸로 상승했다. 10월 초에 6.1%였던 것이 지난 달 급등해 6.79%를 기록했다.
- 모기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는 타격으로 다가왔다. 모기지율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 모기지율 같이 시장에 기반을 둔 이자율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의 정책이 아닌, 연준의 향후 정책 예상에 따라 움직인다.
- 내년엔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지는 불투명하다. 경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 연준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NYT 기사

[에너지]

WSJ: OPEC Trims Demand Forecast for Fourth Straight Month OPEC, 4개월 연속해서 수요 전망 낮춘다

- OPEC이 4개월 연속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OPEC은 올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193만 배럴에서 182만 배럴로, 내년 전망을 164만 배럴에서 154만 배럴로 조정했다.
- OPEC은 전체적인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OPEC은 세계 석유 수요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연평균인 하루 140만 배럴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 총수요는 올해 약 1억4백만 배럴, 내년 약 1억5백60만 배럴로 예측했다.
- 한편, 중국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은 올해 하루 58만 배럴에서 45만 배럴로, 내년 전망은 41만 배럴에서 31만 배럴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 수요 둔화는 국제 유가를 떨어트리고 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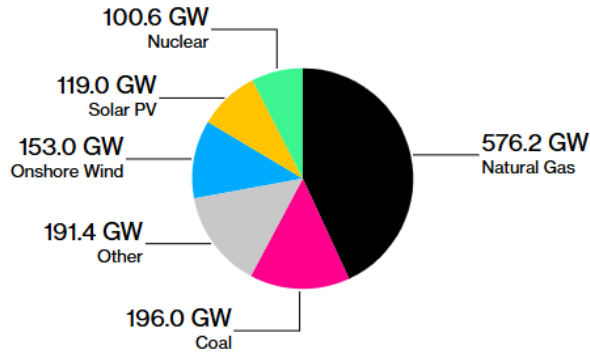
Bloomberg: US Unveils Plan to Triple Nuclear Power by 2050 as Demand Soars 미국,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 늘린다

- 바이든 행정부가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량을 3배 늘리고, 200기가와트(GW)의 추가 발전량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 배출이 없고 24시간 지속 가능한 전력원으로서 원자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 펜실베이니아주의 Three Mile Island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또한 여러 국가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2주간 COP29 기후 정상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된 원자력 산업이 현재 재평가되고 있다.

US Power Capacity Mix

Nuclear accounted for about 100 GW of installed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in the US in 2023



Source: BloombergNEF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 Urges Lifting Domestic Demand With New Trump Term in Sight

중국, 트럼프 시대 맞이해 내수 시장 회복에 힘쓴다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시장이 강화되면 중국 자체 발전은 물론, 외국 수요 감소와 같은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올해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 부동산 위기 때문에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 CNBC 홍콩 투자 Ltd. 분석가들은 지난주 발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책에 대해 “내년에는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Home Depot Lifts Full-Year Outlook After Third-Quarter Sales Rise

홈디포, 3분기 매출 증가

- 홈디포(Home Depot) 3분기 매출이 증가해 402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남동부 지역에서 허리케인에 대비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홈디포는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홈디포 CFO Richard McPhail은 “약세를 보이던 일부 제품군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릴 카테고리에는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말했다.
- 또한 홈디포는 전문가 소비층으로부터 페인트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허리케인에 대비해 합판, 전기톱, 발전기, 배터리, 손전등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 McPhail은 “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미루고 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대규모 리모델링을 실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WSJ 기사

Bloomberg: Hertz Falls on Mounting Losses From Failed Bet on Tesla EVs

Hertz, 테슬라 베팅 실패로 손실 증가

- 렌터카 회사 Hertz가 큰 손실을 발표한 후 주가가 급락했다. 테슬라 전기차로 차량 플릿(특정 회사나 조직이 운영하는 차량들)을 전환하려던 Hertz의 전략은 실패했다.
- Hertz는 이번 전기차 투자로 3분기 동안 주당 68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46센트 손실을 예상했었다. 또한 이번 분기 10억 달러의 비현금 차감을 기록했다.
- 대부분의 차감은 테슬라 전기차에서 발생했다.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급락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Hertz의 이번 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매출은 5%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차량당 수익은 3% 하락한 1,567 달러를 기록했다. 감가상각비(시간이 지나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부분을 회계적으로 반영한 비용)는 89% 증가한 월 537 달러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CNBC: GM's Wall Street vindication is happening as it outperforms its peers in 2024

GM, 올해 관련 업계에서 독보적인 성과

- GM은 올해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GM은 월스트리트 예상보다 뛰어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GM이 포드나 스텔란티스 같은 경쟁업체들보다 운영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GM이 내년에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2025년 실적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M의 CEO Mary

Barra는 GM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해 업계에서 차별화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C 기사

CNBC: Red Lobster bets on a millennial makeover

레드 랍스터, 밀레니얼 세대에 베팅

- 레드 랍스터의 새로운 CEO Damola Adamolekun은 브랜드 부활을 위해 밀레니얼 세대에 베팅했다. 레드 랍스터는 파산 절차를 마치고 이번 브랜드 개선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새로운 조명과 음악 리스트를 준비했고, 9개의 가성비 있는 신메뉴를 추가하고, 허시 파피(hush puppies)와 같은 인기 메뉴를 복원할 계획이다.
- 하버드 대학교 교수 Caitlin Daniel는 “레드 랍스터 같은 레스토랑들이 향수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 레드 랍스터뿐만 아니라 여러 레스토랑 체인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Placer. Ai의 분석 연구 책임자 R.J. Hottoby는 외식 비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집에서 식사하거나 할인 매장만 찾는다고 말했다.
- 레드 랍스터는 2023년 ‘20달러 무제한 새우’ 메뉴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1천1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레스토랑 업계 분석가 Jim salera는 매력적인 요소 없이 그저 음식만 많이 제공하면 이익을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보고서]

트럼프 관세폭탄 덮치나... "한국·대만 등에도 영향 가능성"

골드만삭스 보고서

"급증하는 무역적자, 관세부과 촉발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공언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관세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11 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